

금융권의 스테이블 코인 추진 현황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서 대 훈 (kdb14@kdb.co.kr)

- ◆ 미국, EU, 일본 등의 금융기관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실증 테스트를 진행중이며, 각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활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마련중
- ◆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결제·송금방식의 효율성 등에 따른 고객 수요 증대를 대비하여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중인 상황

□ 미국, 일본 등의 금융기관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테스트 중에 있거나 추진 준비단계에 있으며,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관련 규제 마련중

* 일반적으로 지급 또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어, 고정된 화폐가치(1:1)로 전환되거나 상환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

- 금융권은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정합성 및 운영방식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
임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테스트를 시작으로 점진적인 도입을 검토
 - J.P. Morgan, Société Générale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도입되고 있는 법규
하에 운영방식을 재정비하고 내부거래 및 기관 고객의 결제를 대상으로 실증
테스트를 시행중

글로벌 금융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추진현황

기관	명칭	비 고
J.P. Morgan (美)	JPM Coin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일종으로, '20년 도입을 시작하여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기업내·기업간 연중무휴의 실시간 결제에 사용중
Société Générale (佛)	EURCV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23년 공개하여 그룹내·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하다가 점차적으로 기업고객 등으로 이용 대상을 확장중
ANZ (豪)	A\$DC	호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22년 도입을 시작하여 탄소 배출권 거래 등 기관간 결제로 테스트 중
MUFG, SMBC, Mizuho (日)	미정	엔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25년 기업의 자금결제에 활용하기 위한 실증 테스트 진행중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참조

- 최근 EU MiCA('23.6월)*, 일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25.6월) 등 관련 법의 제·
개정에 이어 미국도 GENIUS Act('25.7월)**를 통과시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적인 발행·운영을 위한 국가의 규제방향이 명확화되는 추세

*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 공통적으로 ① 코인의 가치를 유지시켜 주는 준비자산(담보)은 최소 1:1 이상, ② 현금, 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준비자산 구성, ③ 결제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지급 불가 등을 주요사항으로 규정
- 이외에 중국은 본토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금지하고 CBDC*만 허용하고 있으며, 홍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테스트중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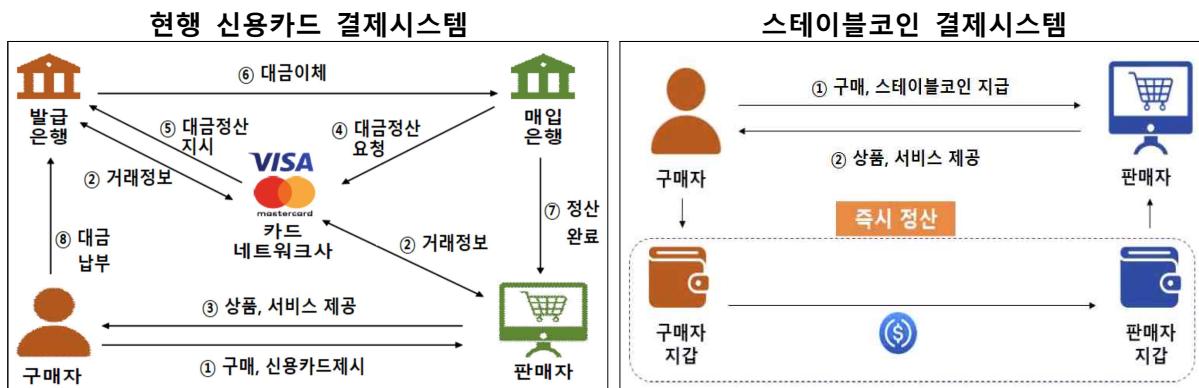
국가별 스테이블 코인 발행관련 주요 규제현황

구 분	발행조건	인정 준비자산(담보)	발행자	이자지급
GENIUS Act (美)	발행잔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 유지, 준비자산은 구분관리 등	현금, 예치금, 단기 국채, RP, 정부형 MMF 등	부보 예금취급 기관 자체, 비은행기관 등	X
MiCA (EU)	발행잔액 이상의 준비자산 보유, 준비자산의 구분관리 등	은행 예치금(발행액의 30%이상) 등 저위험 자산	은행, 전자화폐기관	X
자금결제법 (日)	동일한 가치의 준비자산 보유, 준비자산의 구분관리 등	은행 요구불 예금(최소 50% 이상), 단기 국채 및 중도 해지 가능 정기예금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체업자	관련내용 부재

자료 : 각 법률안

□ 금융기관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송금방식의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추진중이며, 관련 인프라를 도입하지 않으면 생태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

-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간, 기관간 실시간 지급을 통해 결제 시차를 해소하고 환율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이와 더불어 코인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계약*의 구현을 통한 결제시스템의 기능적 확장도 예상
- * 조건이 만족되면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자동 실행되도록 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무역금융에서 전자BL이 도착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자동지급하는 방식임



자료 : 한국은행('25.10),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 또한, 금융기관들은 결제·송금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락인(lock-in)* 효과를 감안하여, 타 금융기관이나 펀테크 업체 대비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너무 뒤쳐지지 않도록 준비중

* 소비자가 한번 사용에 친숙해지면 굳이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현상

□ 국내은행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활용방안 논의 등을 통해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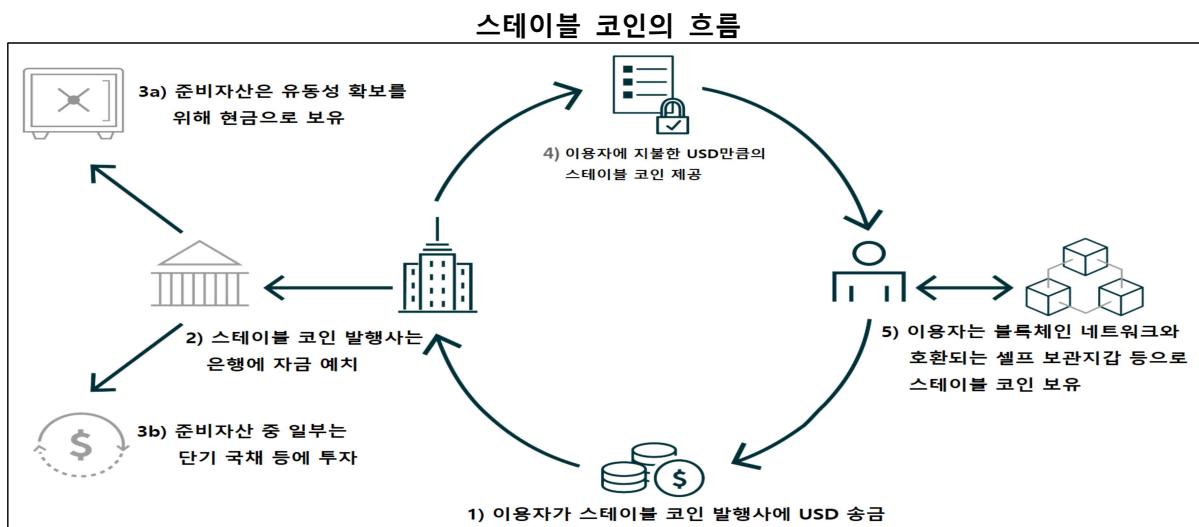
- 국내에서는 국민·신한·우리·농협 등 주요 6개 은행과 금융결제원 등이 스테이블 코인의 첫 공동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검토*하는 등 은행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논의중인 상황

* 국제금융센터(25.5),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도입에 따른 은행산업 영향"

- 단기적으로는 원화의 기관간 지급결제 용도 등으로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예대마진 등을 통한 은행의 수익창출 방식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소규모 발행을 통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전망

*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따른 준비자산은 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금 및 예금 수취시 단순 보관만 가능하며, 준비자산으로 단기 국채 매입 등을 통한 만기보유 이익만 발생가능

- 다만,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을 위해서는 해외사례와 같이 관련 법규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



자료 : Global X by Mirae Asset 홈페이지